

## 선교를 사랑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 이재환 선교사 / 2003. 4. 25 -

선교를 사랑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지금 요나 선교학교라는 선교 프로그램을 7개국에서 “Mission Possible”이라는 책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현장에서 직접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중간에 있는 단체로서 교회와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지에 파송하는 Come Mission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떠날 때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책을 이해할 만큼의 실력이었다면 선교를 참 잘 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부끄럽도록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선교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조 가투라는 케냐의 목사님이 5년 동안만 Mission Moratorium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년 동안 선교사 보내지 말고 받지도 말자고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무절제한 사역 때문이었지요. 가부장적 선교라는 Paternalism, 제국주의 선교라는 Imperialism, 식민주의라는 Neo-Colonialism 등등의 고통스러움 때문이었지요. 선교는 결코 단 하루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의 제안은 이유가 있어서 세계 교회협의회에 제출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교를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교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노하우도 없었고 정보도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나 선교사가 바른 선교를 알고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교의 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성장할 때이기 때문이지요. 선교는 선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교지를 위한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교회가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사 때문에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선교지에 대해서 알고 그들의 필요인 복음을 프로젝트보다 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선교는 감동을 주는 사역이지요. 그러나 선교를 감동으로 하면 안 되지요. 감동을 못 주는 선교사는 선교비 받기도 힘들다고 해요.

선교는 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는 것이지요. 마땅한 일은 감동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이제는 선교사나 교회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교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진행해야겠지만 아직도 복음을 못 들어 본 미전도 부족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못들은 사람들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어느 곳은 복음이 파도를 치고 있는 데 어떤 곳은 복음의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교의 중복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에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가 자그마치 97%에서 98%라는 믿지 못할 수치입니다. 이제 미전도 부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기가 우리들에게 위대한 세기라는 것은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가 끝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모든 미전도 부족의 지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선교사의 모든 분포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록하는 인간 역사가 우리세대에 끝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암송 기도하던 주기도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우리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선교는 이 땅에 아름다운 복음을 확장하자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선교는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선교는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땅 끝 선교입니다. 선교는 마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한 고난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의 성취를 위한 사역이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허리끈을 동이고 출애굽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열정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선교는 헌신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역입니다. 건강, 자녀 교육, 미래의 어두움, 가족과의 이별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위대한 21세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은 선교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의 큰 기쁨의 나라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